

보도시점 2025. 5. 18.(일) 12:00 배포 2025. 5.18.(일) 08:00

제34차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 연차총회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

- 연차총회에서 5개년 전략·자본 프레임워크(‘26~’30년) 및 3개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EBRD 지원국 확대 의결
- 마크 보우먼 정책 파트너십 EBRD 부총재 면담 계기 한-EBRD 지식 관리 협력 양해각서 개정안 서명 등 진행

기획재정부(문지성 개발금융국장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)는 ‘25.5.14(수)~15(목)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34차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* 연차총회에 참석하였다.

* 유럽부흥개발은행(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) :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을 위해 ‘91년도에 설립된 개발은행으로,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참여

“외연을 넓히고, 강점을 지속하다”(Expanding Horizons, Enduring Strengths)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EBRD 연차총회에서는 ‘26~’30년 5개년 동안의 주요 정책 방향인 전략 및 자본 프레임워크(Strategic and Capital Framework)*과 세부 이행 계획인 ‘25~’27년 전략이행계획(Strategic Implementation Plan)**을 채택하였다. 또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(베냉, 코트디부아르, 나이지리아)들까지 지원 외연을 넓히는 데 합의하였다.

* ‘26~’30년 전략 및 자본 프레임워크 : 5년 단위로 수립되는 EBRD의 전략 및 자본 운영 방향으로 이번 전략·자본 프레임워크는 3가지 전략주제(기후 중심 경제체제 전환, 내부체제 개선, 인적자원 개발), 2가지 전략실행요소(디지털 기술, 민간 자원 도입), 성과평가 강화 등이 주요 내용

** ‘25-’27년 전략 이행 계획 : 전략 및 자본 프레임워크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매년 3년 이행계획을 수립

각 회원국 대표들은 새로운 전략 및 자본 프레임워크('26~'30년), 우크라이나 지원·재건, EBRD 지원지역 확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. EBRD 오딜 르노-바소 총재는 이번에 발표된 프레임워크는 '23년 자본 증자시 회원국과 논의한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며,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EBRD의 핵심 우선순위로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.

문지성 국장은 이번 EBRD의 전략 및 자본 프레임워크('26~'30년)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언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. 먼저 주요 전략 방향인 '기후 중심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했다. 두 번째로, 국가 경제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다. 마지막으로 은행의 투자 및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원 국가의 역량 또한 함께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다.

아울러 기획재정부는 EBRD 정책·파트너십 부총재(Mr. Mark Bowman) 및 인사국장(Ms. Hannah Meadley-Roberts)와 만나 현안을 논의하였다. 먼저 부총재와는 한국-EBRD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*를 개정하는 한편, 한국 측 신탁 기금 성과평가 체계를 설명하고 EBRD의 관심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. 인사국장에게는 한국 국적의 고위직 및 한국인 채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,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국제기구 채용설명회에 대한 관심 및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다.

* 한-EBRD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 : EBRD의 수원국 대상 지식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및 EBRD 양자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로, '16.7월 체결되었으며 이번에 최초 개정함

< EBRD >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	책임자	과 장	범진완	(044-215-8720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은	(movingiz@korea.kr)

